

자 기 소 개 서

성장과정 및 경력

인간의 전체 감각 중 80%를 시각이 차지한다는 사실이 있듯이 저 역시도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심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직업을 가지고 싶어 어린 시절부터 늘 변함없는 꿈은 디자이너였습니다. 시즌마다 트렌드에 맞춰 빠르고 화려하게 움직이는 패션업계를 동경하게 되어 패션디자인을 전공하였으며, 대학 졸업 후 6년간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근무하던 중 쇼핑몰에서 실물을 직접 보지 않고 구매를 하는 온라인 시대에 상세 페이지에 따라 발생하는 판매량의 차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. 판매자가 공들여 준비한 제품이 고객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와 웹디자인의 역할과 중요성을 느꼈으며, 그 뒤로 패션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던 디자이너 커리어를 웹디자인이라는 또 다른 디자인 분야로 시야를 넓히고자 웹디자인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. 제가 겪었던 디자인 업계에서의 다양한 경험은 웹디자이너로서도 발전될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.

성격의 장단점

‘지금, 오늘에 최선을 다하자!’가 저의 생활신조입니다. 오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되며, 최선을 다한 하루가 모여 더 나은 미래로 인도해 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저는 주어진 시간에 최대치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열중하며 책임감 있게 업무를 마무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시작과 끝맺음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. 그래서 퇴사 시에는 제 업무 내용을 꼼꼼히 작성 후 인수인계 파일을 남겨두고 마무리하였고 과제나 업무의 데드라인은 꼭 준수하여 지켰습니다. 특히나 디지털디자인(웹디자인) 구직자 양성과정에서 교육받은 웹 퍼블리싱 과정은 이때까지 접했던 분야와는 너무 다른 과목으로 처음에는 많이 헤매었지만 수업 종료 후 배운 내용에 대해 블로그로 정리하며 내용을 익혔으며 1주일간의 클론 코딩 과제 시 마주친 버그는 주말 동안 유튜브와 구글링을 통해 버그를 해결하고 제시간에 제출해내면서 뿌듯한 성과를 낸 기억이 있습니다. 이렇듯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포기하지 않고 빠르게 해결방안을 찾아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.

지원동기 및 입사 후 포부

지금처럼 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. 저 역시도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 또 다른 시작을 꿈꾸고 있습니다. 이렇듯 업무를 접할 때도 항상 열린 마음의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. 그리고 디자인 작업 전 레이아웃 구성 시 얼마나 많은 자료를 참고했는지에 따라 작업물의 콘셉트 방향이 다르게 진행됩니다. 저 또한 브랜딩 작업 시 머릿속에 생각한 것을 그대로 옮기기 보다 핀터레스트나 노트 폴리오 자료를 참고 후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작업했을 때 컬러나 폰트 그리고 로고 캐릭터 방향성이 더 구체적으로 잡혀 보다 나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.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저는 디자인 감각을 증진시키기 위해 꾸준히 정보들을 검색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면서 지속적으로 좋은 디자인을 창작해 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.

위의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.

작성일 : 2021년 06월 16일 (월)

작성자 : 김도영 (인)